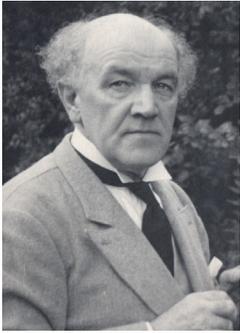


더욱 빛나야 할 그 이름, 니콜라이 메트너 한국메트너협회 설립자 피아니스트 신해신

글 이세은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 니콜라이 메트너(Nikolai Medtner, 1880-1951). 동시대를 살았던 라흐마니노프나 스크리아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메트너는 수많은 피아노 작품들을 비롯해 실내악과 성악곡 등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음악을 남겼다. 소수의 음악애호가와 연주자들 사이에서만 기억되면서 메트너는 '점차 잊혀져가는 불운의 작곡가'라는 별칭을 가졌지만 그의 아름다운 유산을 기억하고 알리는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서도 한국메트너협회가 발족되었다.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메트너의 삶과 음악들을 연구하여 다양한 연주와 활동들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메트너협회의 설립자인 피아니스트 신해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2016년 1월, 피아니스트 최한나와 함께 한국메트너협회를 창단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협회를 설립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둘은 학부 시절 서울대 장형준 교수님·장형준 교수는 메트너의 음악을 널리 알리려고 애썼던 피아니스트 얼 와일드(Earl Wild)에게 사사했다. 께 사사한 후, 저는 미국으로, 한나 양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메트너 국제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트너의 작품으로 구성된 연주회들과 마스터클래스, 그리고 학술대회로 구성된 페스티벌을 통해 다각도로 메트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메트너의 음악과 사상, 예술 세계에 크게 매료된 저희는 페스티벌 참석 이후 메트너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함께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3일, 제1회 한국메트너협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Medtner Society of Korea'로써 해외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트너 음악의 어떤 점이 매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메트너의 작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리고 작품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메트너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메트너 특유의 서정성과 화성 전개, 독특한 리듬, 러시아적 색채가 뚜렷하면서도 독일 전통의 형식미가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왜 이 작곡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이런 작품이 왜 많이 연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메트너라는 작곡가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저도 별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메트너에 관한 책, 논문, 온라인 자료 등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그의 삶에 대해 알아나갔습니다. 또 메트너가 직접 연주한 레코딩을 통해서 메트너의 피아니즘과 작품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국립 글린카 박물관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메트너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메트너가 직접 남긴 자필 원고와 노트를 직접 읽어볼 수 있었던 가슴 벅찬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메트너는 뛰어난 작가이기도 했는데, 자신의 예술철학을 <뮤즈 앤 더 패션>이라는 책에 담아냈습니다. 이 책에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예술에 대한 메트너의 소명의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 역시 연주자로서,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단지 음악작품뿐 아니라 메트너의 사상과 삶 모두가 후대 음악가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메트너협회에서도 메트너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분들



01-02 <제1회 한국메트너협회 정기연주회> 01 바이올린 Viktoria Kaunzner, 피아노 신해신 02 플루트 성해라, 피아노 최하나
03 2018-19 시즌 미국 콘서트 시리즈 중 2018년 11월 연주 후, 신해신과 소프라노 Elena Mindlina

과 함께 교감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제1회 한국메트너협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메트너의 음악인만큼 음악회에 오신 청중들이 메트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 텐데요, 공연 후 얻은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연주 후, 음악 애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관객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악인들을 만나왔고 평생 클래식 음악을 들어왔지만, 메트너라는 작곡가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어 적잖이 놀라셨답니다. 연주회에 오기 전 나름대로 메트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시고 오셨다는 그 말씀에서 많은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메트너의 음악을 연주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해주셔서 더욱 사명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메트너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작곡가 인데요, 다른 유럽권 나라에서는 메트너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메트너의 절친한 친구였던 라흐마니노프와 비교한다면, 메트너의 이름은 유럽권에서도 대중에게는 아직까지 덜 알려진 편입니다. 그렇지만 메트너가 러시아 출신이고 영국 런던에서 생을 마감하였기에 이 두 나라에서의 인지도가 다른 곳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독일에서 발족한 국제 메트너협회(Internationale Nikolaj Medtner Gesellschaft)의 왕성한 활동으로 독일에서의 인지도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 베레조프스키, 루간스키와 더불어 다닐 트리포노프,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루카스 데바르그 등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의 최근 입상자들이 메트너의 음악을 무대에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더욱 소개될 것이 많은 메트너만큼 앞으로의 협회 활동이 기대됩니다. 한국메트너협회가 가질 연주회를 비롯해 계획 중인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메트너는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꾸준히 주요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며, 피아노 협주곡을 두 피아노(2 Piano) 버전으로 연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있는 미국 보스턴 공연(협회 주최 2018-19 미국 콘서트 시리즈)에서는 알렉산드르 푸쉬킨(Aleksandr Pushkin, 1799-1837) 탄생 220주년을 맞아 푸쉬킨의 시를 바탕으로 한 메트너의 성악곡들을 소프라노 Elena Mindlina와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메트너의 작품과 함께 동시대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함께 구성해 많이 선보였다면, 앞으로는 메트너가 영향을 받았던 이전 시대 작품들을 비롯해, 피아니스트로서 메트너 본인이 연주했던 프로그래밍 또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교육자로서의 메트너 등 다양한 그의 면모를 살피고, 그의 확고한 예술철학을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렉처콘서트와 세미나 또한 열고 싶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연주자들에게 메트너의 음악을 소개하고 연주 기회를 줄 수 있는 워크숍과 콩쿠르를 개최하려 합니다. 국내는 물론 메트너의 고향인 모스크바에서 입상자 연주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문으로 출판된 메트너 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메트너의 삶과 음악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